

SK에너지, 중국 황사 방지사업 지원

SK에너지가 중국의 황사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.

SK에너지는 4월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에서 <한국-중국 우호 녹색장성 사업>에 필요한 후원금 1억5000만원을 한중문화청소년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.



전달식에는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과 권병현 한중문화청소년협회 대표가 참석했다.

우호 녹색장성 사업은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황사 발원지인 Neimenggu의 쿠부치 사막에 14km²의 방사림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.

SK에너지는 2007년부터 총 7억5000만원을 지원해 226만그루의 방사림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.

신현철 부회장은 “황사 피해는 중국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 문제”라며

“SK에너지는 앞으로도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”이라고 밝혔다

<화학저널 2009/04/02>